



미 증시, 물가지표 결과에 안도하며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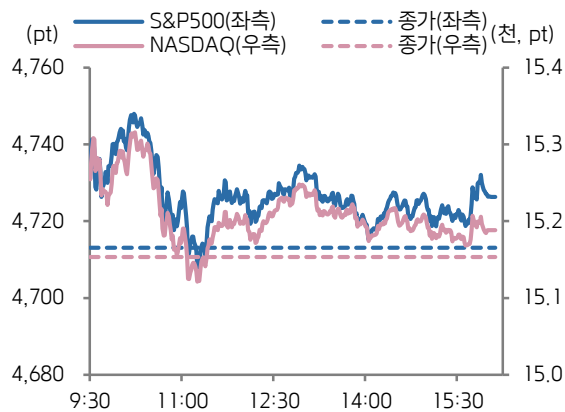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12 일(수) 미국 증시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에서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 지표에 안도하며 연일 상승. 미국 12 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7.0%(+7.0%, 전월 +6.8%), 근원 지표는 5.5%(예상 +5.4%, 전월 +4.9%) 기록. 근원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우려보다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도. 금리 상승세 진정에 힘입어 S&P500 은 오전 0.8%까지 상승했지만, 장중 종목별 차별화 심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등으로 상승폭을 축소하며 마감(다우 +0.11%, S&P500 +0.28%, 나스닥 +0.23%, 러셀 2000 -0.82%)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대비 7.0% 상승하며 40 년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시장 우려만큼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감이 강화됨. 장중 발표된 베이지북에서도 11 월~12 월 대부분 지역에서 물가가 “탄탄한(Solid)” 상승세를 보였지만, 일부 지역에선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었다고 발표. 이에 따라 VIX 지수가 17pt 대로 내려오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 개선세는 지속됨. 다만 장중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은 연준의 긴축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시키며 지수 상승폭을 제한 시킴.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올해 4 회 금리 인상 전망, 매스터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3 월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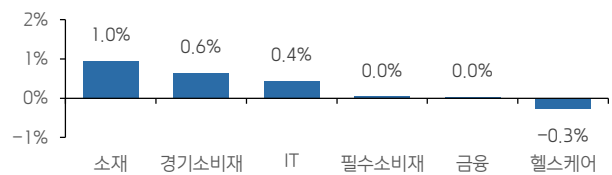
업종별로 소재(+1.0%), 경기소비재(+0.6%), IT(+0.4%) 등 대부분 상승한 반면, 헬스케어(-0.3%)는 하락. 이날 마이크로소프트(+1.0%), 테슬라(+3.9%)는 상승했지만 메타(-0.3%), 아마존(-0.1%) 하락하는 등 성장주 중에서도 차별화된 흐름을 보임. 종목별로 바이오젠(-7.0%)은 메디케어가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커버리지를 제한한다는 소식에 급락했고, 페이팔(-2.3%)도 제프리스의 투자의견 하향 조정 여파로 하락.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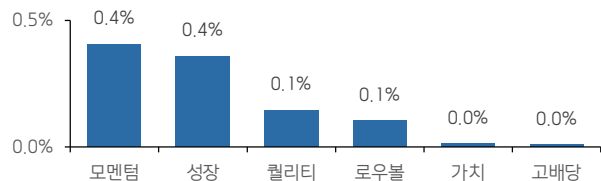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726.35	+0.28%	USD/KRW	1,190.42	-0.37%
NASDAQ	15,188.39	+0.23%	달러 지수	94.94	-0.71%
다우	36,290.32	+0.11%	EUR/USD	1.14	+0.72%
VIX	17.58	-4.51%	USD/CNH	6.36	-0.26%
러셀 2000	2,176.06	-0.82%	USD/JPY	114.52	-0.68%
필라. 반도체	3,901.21	+0.66%	채권시장		
다우 운송	15,971.10	-0.12%	국고채 3년	1.987	-4.1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415	-6.5bp
Eurostoxx50	4,316.39	+0.81%	미국 국채 2년	0.909	+2.6bp
MSCI 전세계 지수	747.63	+0.86%	미국 국채 10년	1.739	+0.4bp
MSCI DM 지수	3,193.39	+0.86%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43.04	+0.87%	WTI	82.78	+1.92%
MSCI 한국 ETF	79.77	+1.98%	금	1827	+0.4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98%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66%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3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8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과 중국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에 따른 국내 증시 투자심리 개선 여부 2. 전거래일 단기 폭등세를 보였던 일부 성장주들의 단기 차익실현 물량 출회 가능성 3. 옵션 만기일에 따른 현선물 수급 변동성 확대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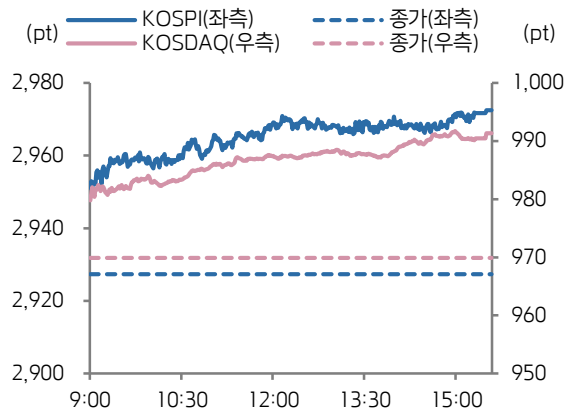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2 월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7.0%(YoY)로 1982 년 이후 처음으로 7%대에 진입한 가운데, 당분간 연준의 2% 물가목표치를 상회하는 고 인플레이션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자체가 증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음. 그러나 금번 12 월 물가는 예상치(7.0%~7.1%)에 부합한 가운데, 중국의 12 월 생산자물가(10.3%YoY)도 예상(11.3%) 및 전월(12.9%)를 하회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미국과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

물론 미국 물가 지표 발표 직후 있었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와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내 4 회 금리인상, 상반기 내 양적긴축 실행 등 연준 내 일부 위원들은 빠른 속도의 긴축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다만 연준의 양적 긴축 우려가 촉발했던 탠트럼(금융시장 긴축발작) 현상은 현재 시장참여자들이 상당부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 감안 시 1 월 FOMC(25~26 일) 이전까지는 연준발 시장 변동성 확대는 제한적일 것이며, 현재 본격적으로 시작 준비 예정인 4 분기 실적 시즌에 시장 참여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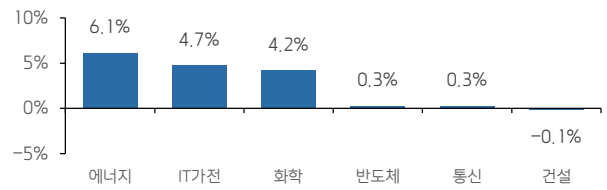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도 미국과 중국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 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 전망 등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반도체, IT 등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한 외국인과 국내 투신권의 순매수 추세가 유효하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 다만, 전거래일 급등했던 2 차전지 등 성장주들의 단기 차익실현물량 출회 가능성이 상존한 가운데, 옵션만기일 및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경계감에서 기인한 수급 변화가 금일 국내 증시의 장중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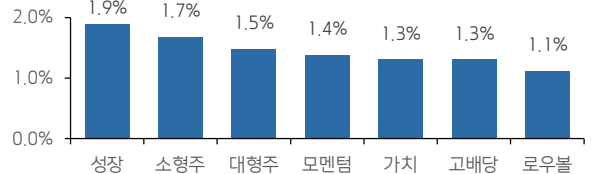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